교육부 로스쿨 발표·향후 전망

핵심논란 '추가 선정' 새정부에 넘긴 셈

조선대·단국대 등 대책 강력 촉구

탈락대학 줄소송… 일정차질 불가피

4일 오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 확정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차례에 걸친 발표연기 진통 끝에 교육부가 4일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하면서 오는 9월 본인가 때 추가선정 가능성을 밝히자 각 대학은 "당장 빚어지는 갈등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총정원 대폭 확대 등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역 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 본인가까지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잉여증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탈락대학의 추가 선정 가능성은 적다.

◇조선대 추가 선정 가능성=일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당장 예비인가 대학에서 로스쿨 이행 부진으로 정원 감축 및 인가 취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방법은 총정원 증원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로스쿨의 판을 새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아직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은 물론 인선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정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까지 있다. 정원 확대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조선대의 로스쿨 선정 가능성은 한마디로 암울한 상황이다.

◇탈락 대학 소송전 봇물=이번 교육부의 잠정안 확정으로 탈락 대학들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예비인가 심사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조선대는 4일 탈락이 확정되자 모든 법적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법학과 교수 10여명은 이날 오후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가 있은 직후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과 함께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단국대는 "로스쿨 선정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안배'는 당초 로스쿨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포함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모법 위임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중앙대와 홍익대, 동국대, 단국대 등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연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일정 차질 등 향후 전망=탈락 대학들의 줄소송으로 로스쿨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월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이 발표되고 3월 대학별 입시전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어 8월 법학적성시험을 거쳐 11월 신입생이 선발돼야 한다. 법원이 대학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로스쿨 개원은 소송에 묶여 불가능해 진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로스쿨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방안이 조선대 등 탈락 대학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로스쿨 탈락 조선대 표정

망연자실… "탈락 이유 알아야 겠다"

윤승용 전 수석 검찰 수사 의뢰 검토

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로 탈락이 확정된 조선대는 최소한의 기대도 사라졌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조선대는 이날 오전 확정발표에 대비해 보직교수 및 법대 교수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법적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법대 교수 전체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조선대는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항목별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점수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선대는 탈락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줄곧 "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총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조선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왜 탈락했는지 정확한 이유와 그 배경을 알아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대의 탈락 사유에 대해 청와대나 교육부 관계자들이 "점수가 현저히 낮다"는 말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조선대 측은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조선대 한 교수는 "각 항목별로 법학교육위원 자신이 믿고 있는 대학에 한 단계씩만 높은 점수를 줘도 차이는 엄청나게 된다"며 "총점 공개로는 이러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 김춘환 법대 학장은 "예를 들어 교수인 법학교육위원들이 자기 대학은 심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교육부 발표를 보니 권역별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제주대를 제외한 지방권역 16개 대학을 놓고 심사했다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심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대는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과 함께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학교육위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윤승용 "원광대 로스쿨 내가 힘써"

선거 홍보물 등서 주장… 파문 일자 "과장됐다" 해명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의 선거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윤 전 수석의 발언은 자신의 해명처럼 단순하게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광대의 로스쿨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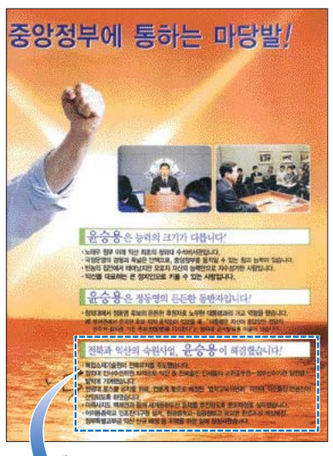
4일 전북 익산 총선 출마를 앞두고 윤 전 수석이 배포한 선거홍보물에는"원광대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언론계 몫으로 배정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에 익산 출신 언론인이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광대의 로스쿨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선거를 의식, 과장되게 말한 측면이 있다'는 윤 전 수석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해석되면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형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낙선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숙지했을 윤 전 수석이 허위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적시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수석은 로스쿨 선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선거홍보물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윤 전 수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윤 전 수석이 총선을 앞두고 오버하다가 자승자박의 신세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익산 지역 주민들에 뿌린 선거 홍보물

전북과 익산의 숙원사업, 윤승용 이 해결했습니다

• 원광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언론계 몫으로 배정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에 익산출신 언론인이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靑 민정수석 이종찬·교육과학수석 이주호

10일 공식 발표… 호남 인사 한명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설 연휴 이후인 10일 청와대 수석 인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수석 인사는 내일(5일)도 발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일쯤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5일로 예정된 인선 발표가 미뤄진 것은 수석 7개 자리 중 정무와 경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4일 현재까지 국정기획수석에는 곽승준(경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민정수석에는 이종찬(경남) 전 서울고검장,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이주호(대구) 한나라당 의원, 외교안보수석에는 김병국(서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정책수석에는 박재완(경남)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 및 대변인은 이동관(서울) 현 인수위 대변인이 맡을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는 유력한 6명의 수석 중 4명이 영남 출신이고 두 명이 서울 출신이어서 지역안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인선에 이어 청와대에서 마저 호남 인사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호남 고립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우려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수석에는 김인규(서울) 당선인 비서실 공보보좌역이 내정됐으나 본인이 고사, 인수위 정무분과 자문위원인 윤원중(광주) 전 의원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강대학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 장학생 모집

동강대학 '지역전략산업의 중국 및 아시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BL(활동중심학습)기반 국제실무인력 양성사업'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영어사용 아시아권을 향한 비즈니스 실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키워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유학의 특전을 부여하는 '동강대학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십시오.

■ **해당 학과**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10개 학과 총 808명

학과	전 공	권역	학과특성	입학상담전화
한중일 비즈니스 계열	(주간) 80명 중국비즈니스 ——— 중국 일본비즈니스 ——— 일본 만화애술비즈니스 ——— 일본 (야간) 40명 유통관리기획 ——— 일본 중국비즈니스 ——— 중국		- 13억 중국시장과 경제대국 일본을 무대로 21세기 비전 창출 - 중국·일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 중국 상해이 '화동사범대학' 비즈니스 중국어과 3학 년 편입 가능 - 일본 오사카 '오사카 국제대학' 경영정보학과 3학년 편입 가능 - 일본 IT관련 기업에의 현지 취업	011-9222-1282 062-520-2399
관광레저과	주간 5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세계를 무대로 관광레저 산업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싱가폴, 필리핀 등)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10-2199 062-520-2528
사회체육계열	레저스포츠 전공 (주간) 3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21세기 국·내외 스포츠 산업을 리드할 스포츠 지도자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24-9112 062-520-2389
호텔외식 관광과	주간 50명	일본	- 호텔 - 외식산업 분야의 국제감각을 지닌 유능한 호텔리어와 외식산업 전문가 양성 - 일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49-9636 062-520-2377
법률경찰 경호계열	주간 8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영어권 관련 법률 및 경찰 전문인력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어학연수, 문화체험 실시	011-9601-5757 062-520-2369
전산세무 회계과	주간 4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실무중심 교육에 기반한 전산세무회계전문가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20-2222 062-520-2376
노인복지과	주간 70명 야간 5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사회복지의 개별영역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인력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0-7128-9115 062-520-2383
토지정보 관리과	주간 50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21세기 기업체가 요구하는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629-7784 062-520-2379
사회복지 행정과	주간 90명 야간 50명	일본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 일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실시	011-9729-0283 062-520-2371
유아교육과 (3년제)	주간 128명	영어사용 아시아권	- 2006, 2007년도 광주·전남 병설유치원 임용고시 다수 합격 - 취업률 매년 100% - 학과 부설 유치원 운영 및 졸업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영어사용 아시아권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실시	011-603-1110 062-520-2381

■ **해외교류협정 대학**

영어권	필리핀 University of Perpetual Help System
일본	오사카국제대학
중국	상해사범대학 상해 화동사범대학 청도대학 청도과기대학 심양공업대학 심양대학

■ 오사카국제대학과 협약식

■ 청도과기대학 현지학기제

■ 청도과기대학 협약식

■ 일본현지체험 팀프로젝트

■ 중국어학연수 발대식

■ 필리핀 현지학기제

■ **해외교류활동 프로그램** : 2007년도 현지체험 팀 프로젝트,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현황

분야	국가명	기간		학생인원
현지체험팀프로젝트	필리핀	6/26 - 6/29	3박4일	23명
어학연수	필리핀	6/26 - 7/25	4주간	18명
현지학기제	필리핀	7/26 - 11/16	16주간	18명
어학연수	중국	7/7 - 8/6	4주간	12명
어학연수	중국	08/1/13 - 2/23	6주	17명
현지체험팀프로젝트	중국	7/10 - 7/13	3박4일	12명
현지학기제	중국	9/17 - 2008/1/6	16주	22명
현지체험팀프로젝트	일본	7/4 - 7/7	3박4일	23명
어학연수	일본	9/10 - 10/20	4주간	23명
현지학기제	일본	10/21 - 2008/2/3	16주	23명
해외인턴십	중국	9/3 - 12/22	16주	2명
해외인턴십	중국	08/1/13 - 2/23	6주	1명
소계	-	-	-	184명

동강대학 국제실무인력양성사업단